

전남 빈집 1만채 정비해 쉼터·쌈지공원으로

도, 지난해 빈집 1만7648채로 전국 최다...내년부터 140억원 투입 경관 저해·붕괴 위험·범죄 우려지 우선 정비...도민 생활 SOC 활용

빈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남도가 빈집의 슬럼화를 막아 주차장이나 쉼터, 쌈지공원 등의 도민 생활 공간으로 조성한다. 빈집이 화재나 안전 사고, 또는 범죄 발생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기획된 사업이다.

전남도가 2023년부터 5년간 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해 빈집 1만 동을 정비해 도민 생활SOC로 활용하기로 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고령화, 저출산 등에 따라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2021년 전국 빈집 6만5203동 가운데 27.1%인 1만7648동으로 가장 많았으며, 빈집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 상위 10곳 중 6곳이 전남 시·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시·군에서 20억원의 자체 사업비로 140여동을 정비하는 등 최근 5년간 100억원을 투입

해 7300여동을 정비했으나,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내년부터 5년 동안 도비 42억원을 포함 총 140억원을 들여 매년 2000동씩 총 1만 동을 정비해 도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빈집 정비에 시·군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빈집 정비 실적이 우수한 3개 시·군을 선정해 추가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정비대상은 도심지 및 가로변 경관을 저해하거나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이다.

정비 부지는 주민 편의 증진 및 마을 환경 개선

을 위해 마을 공공공지,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설치, 쌈지공원 등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더 많은 빈집 정비를 위해 11월 초부터 국회, 중앙부처를 방문해 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빈집 정비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역 시·도별로 빈집이 가장 많은 경북, 전북, 경남과 연대해 빈집 정비 관련 정부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폭설 대응’ 합동훈련

갑작스레 내린 폭설을 가정한 유관기관, 단체의 합동훈련이 6일 오후 광주 북구 용두동과 담양을 잇는 도로확장공사 구간에서 열렸다. 신안동 도로에서 빙판에 미끄러진 교통사고가 난 것을 가상해 열린 훈련에서 소방구조대원들이 사고차량 내에 있는 사상자를 구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佛 앙기엔래방시 문화예술 교류 체계 구축

광주시에 프랑스 앙기엔래방시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교류·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5일 오후 필리페 수에르 앙기엔래방시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과 함께 문화 예술 분야 교류 체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 시장은 "앙기엔래방은 2013년, 광주는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로 지정됐다"며 "두 도시는 미디어아트를 통해 문화예술 도시로 성장하고, 그 속에서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공동의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화상회의에서 수에르 시장은 내년 6월 열리는 프랑스 최대 디지털아트 축제인 '뱅뉴메리크'에, 강 시장은 내년 4월부터 7월까지 열리는 '광주비엔날레'에 서로를 초대하기로 했다.

수에르 시장은 "광주와 앙기엔래방은 1000만km 거리지만 매년 만나기를 기대한다"며 "광주는 인구가 150만명이고, 경제개발도 잘 이뤄진 큰 도시여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프랑스는 파리혁명으로 왕정을 무너뜨린 민주주의의 국가이고, 광주는 군사독재를 무너뜨려 한국의 민주주의를 만든 도시"라며 "두 도시가 힘을 모아 문화예술로 민주주의를 승화하자"고 제안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내년부터 대상 확대

전남 곳곳의 마을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의 생활 현장에서 직접 도움을 주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2023년부터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민간 협력사업으로 호평을 받은 이 사업이 2023년 복권기금 신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10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6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사회취약계층의 일상 불편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성과 공유대회를 열어 도민에게 실질적 힘이 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도민에게 힘이 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22개 시·군 및 297개 읍면동 복지기동대원, 협력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민선7기에 활발하게 추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민선8기에는 기동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으뜸 행복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회사에서 "전남의 대표 행복시책으로 더 많은 도민이 서비스를 받도록 민선8기 동안 복지기동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산·학·연 조선 인력난 해소 협력 광주·전남 반도체 인재양성 나서

조선·해양인의 날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협약

전남도가 6일 목포대 신해양산단캠퍼스에서 제14회 전남 조선·해양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조선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신현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 정대성 대한조선 대표이사, 전남 대불산단 입주업체 등 조선해양기업, 지역대학, 유관기관, 도의원, 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조선해양산업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 최근 늘어난 선박 수주로 조선 인력수급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도-시군-기업-대학 등 간 업무협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에서는 전남 조선해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만 (유)한국씨포트 대표이사, 김동현 (주)청진 이사 등 13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협약식에는 전남도, 해남군,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 두 기업의 사내협력사 등이 참여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수 외국인 유학생 확보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네트워킹 구축 및 교류 협력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지역 사회 정착 및 시범사업 홍보 지원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게 된다.

전남도는 2020년 말부터 조선 선박수주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 현안 대응을 위해 지난해 지자체-기업-유관기관 간 조선인력 수급 지원 전담팀(TF)을 구성해 각종 제도개선 건의, 인력 양성사업 지원 등에 적극 나섰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지자체-기업-대학 등이 상호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도 차원에서도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대학·교육청 등과 인재육성위 출범...공동캠퍼스 등 협력 강화

반도체 특화단지를 광주·전남 접경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원팀을 구성하고 반도체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6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양항자 국회의원, 정성택 전남대 총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반도체 인재양성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인재양성위원회는 지역 인재 양성을 책임지는 각급 교육기관 인사로 구성됐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시도 교육감, 광주대·남부대·동신대·목포대·순천대·조선대·호남대·한국에너지공대·조선이공대·광주폴리텍대 등 지역 대학 총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산업 경쟁에서 국가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해 석박사급, 학사급, 실무급, 장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인재양성 방안과 교육기관 간 협력방안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정성택 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반도체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인재를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미래의 먹거리, 반도체산업을 주도할 핵심 인재 양성에 더욱 매진해 국가 산업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인재양성위원회는 앞으로 대학별, 학과별로 흩어져 운영되는 커리큘럼을 한데 모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수진, 교육시설, 연구시설 등을 통합 운영하는 공동캠퍼스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전문인력 확보 여부가 중요한 평가요소인 만큼 출범식을 계기로 반도체 인재양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